

# 광주은행 오예진, 양궁 태극마크... 첫 아시안게임 출격



광주은행 양궁팀 오예진(23)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올해 생애 첫 실업팀 입단 후 이뤄낸 쾌거다.

오예진은 최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6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 여자 리커브에서 배점 합계 27.5점을 기록, 1위 강재영(현대모비스·33점)에 이어 2위에 안착했다.

한국 양궁은 매년 3차례 선발전을 통해 남녀 리커브·컴파운드 각 8명씩 국가대표를 선정한다. 이들은 두 차례 평가전을 추가로 거쳐 그해 주요 국제 대회에 나설 선수를 정한다.

지난 대회까지 남녀 리커브·컴파운드 각 4명이었던 아시안게임 엔트리는 올해 3명으로 줄어들었다. 4위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3명과 함께 엔트리가 4명인 2026 현대 양궁 월드컵 2·3차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이번 평가전에서 최종 2위에 안착한 오예진은 이로써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오예진은 한국 여자 양궁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스타다. 그는 2024년 국가대표로 아시안컵대회 3관왕을 차지했고, 지난해는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월에는 광주은행 댄스 양궁단에 입단했다. 김성은 감독이 이끄는 광주은행 댄스 양궁단은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과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을 비롯해 최예진, 박진영으로 구성돼 있

다. 여기에 오예진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단 당시 오예진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국가대표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가까운 목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 종합대회 출전 경험이 없는 그는 이번 평가전에서 곧바로 자신의 목표를 이뤄냈다.

국가대표 선정 후 오예진은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생애 첫 국가대표 1진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 기쁘다"며 "올해 광주은행에 입단하면서 실업 선수로서의 책임감도 한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라는 각오로 훈련에 매진해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기간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팀 안산은 이번 평가전에서 배점 합계 23점으로 5위에 머물면서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이외에 여자 리커브에서는 이윤지(25·현대모비스)가 배점 합계 26점으로 3위에 올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다. 4위는 24.5점을 쓴 장민희(27·인천시청)다.

한겨울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에서 연달아 3관왕에 올랐던 임시현(한국체대)은 선발전에서 일찌감치 탈락

했다. 결국 도쿄 올림픽 금메달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큰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만인니' 강재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해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메이저 대회 개인전 징크스를 떨쳐낸 강재영은 아이치에서 첫 국제 종합대회 개인전 우승에 도전한다.

남자 리커브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양궁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김제덕(22·예천군청), 김우진(34·청주시청), 이우석(29·코오롱)이 나란히 1~3위에 올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함께했던 이들은 이로써 3회 연속으로 메이저 국제 종합대회에 함께 출전하게 됐다. 앞서 이들은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리커브 단체전 금메달

을 합작해 한국 양궁의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5개 싹싹이 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남자 컴파운드에서는 김중호(32)와 최용희(42·이상 현대제철)가 4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에 나선다. 김중호와 최용희는 각각 1·3위에 올랐고, 2위 최은규(33·울산남구청)가 이들과 함께한다. 여자 컴파운드에서는 박예린(20·한국체대), 박정윤(29·창원시청), 강연서(15·부천G-스포츠)가 차례로 1~3위에 올랐다.

이들 세 선수 모두 처음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강연서는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양궁 대표팀의 유일한 10대 학생 선수다.

컴파운드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2026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서 합계 27.5 '2위' 첫 실업팀 입단 후 선발... "책임감 갖고 훈련 매진"

결과를 이끌어 내 기쁘다"며 "올해 광주은행에 입단하면서 실업 선수로서의 책임감도 한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라는 각오로 훈련에 매진해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기간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팀 안산은 이번 평가전에서 배점 합계 23점으로 5위에 머물면서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이외에 여자 리커브에서는 이윤지(25·현대모비스)가 배점 합계 26점으로 3위에 올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다. 4위는 24.5점을 쓴 장민희(27·인천시청)다.

한겨울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에서 연달아 3관왕에 올랐던 임시현(한국체대)은 선발전에서 일찌감치 탈락



전남 요트 선수단은 최근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합계 850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 전남 요트, 대통령기 전국대회 21년 만 '종합우승'

금 6·은 3·동 1개 획득...850득점 전 종목 고른 활약...상승세 기대 아시안게임 선발전서 경쟁력 입증

전남 요트가 21년 만에 대통령기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남 요트 선수단은 최근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합계 850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전남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대회 2연패 이후 21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는 5개 종목 11개 클래스로 나뉘어 전국에서 600여명이 참가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전남은 대회 초반부터 상승세를 탔다. 여수시청 김장주·이경진 조가 남자 일반부 470 혼성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두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안게임 출전권도 확보했다.

이어 박성희(부영여고 3년)가 ILCA6 여자 중·고등부, 박준수(예당고 2년)가 남자 중·고등부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정지혁·서민준(보성비봉마리나요트스프츠클럽, 보성고 1년)은 29er 남자 중·고등부에서, 최은호(여수공공스포츠클

럽, 웅천초 6년)와 박다운(보성비봉마리나요트, 보성노동초 6년)은 유티미스트 남·여자 초등부에서 정상에 올랐다.

또 ILCA4 여자 중등부 바이루다(보성비봉마리나요트스프츠클럽, 보성여중 2년), 유티미스트 여자 초등부 김지원(여수공공스포츠클럽, 여수중고 초 6년), 여자 중등부 고민서(보성비봉마리나요트스프츠클럽, 예당중 2년)가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유티미스트 단체전에서도 바이루다·고민서·이승호(무선중 2년), 김단아(여수공공스포츠클럽, 여남초 6년)가 동메달을 보냈다.

이밖에도 이승호·송혜서·김세윤(이상 여수고), 성시유·이석현·배상우·이현승(이상 여수시청), 서승준(보성비봉마리나요트스프츠클럽, 보성중 2년)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종합우승에 힘을 보탤다.

이번 성과는 선수단의 기량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이 더해져 결과로 평가된다. 전남도체육회는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해 실전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전남 스포츠과학센터는 대회 기간 현장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경기력 분석을 도왔다.

이용욱 전남요트협회장은 "선수단과 지도자들의 노력, 팀워크가 종합우승으로 이어졌다"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1년 만의 종합우승은 선수단의 노력과 체계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전남 요트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 생활체육 동호인, 전국대축전 선전 다짐

23~26일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김해서 개최...31개 종목 700명 출전

광주시체육회가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결단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19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구제길 동구체육회장, 정천규 서구체육회장, 정희환 북구체육회장, 배영모 광산구체육회장과 윤운철·박종규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종목단체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다.

결단식은 선수단 훈련 모습과 주요 활약상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참가계획 보고, 선수대표 선서, 단복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선수대표 선서에는 당구 종목의 박종문(79) 선수와 체조 종목의 정영숙(74) 선수가 나서 생활체육인의 열정과 각오를 전했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김해서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광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광주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주 선수단 700명이 출전한다. 선수 626명, 임원 74명으로 구성된 광주 선수단은 축구, 탁구, 파크골프 등 3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전국 단위 생활체육 축제로, 광주 선수단 역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선전이 기대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남 근대5종, 시즌 첫 전국 무대에서 '은 2'

남일 5종·혼성 4종 릴레이 2위

전남 근대5종이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전남도청 근대5종 선수단은 최근 강원 홍천에서 열린 '제43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남일 5종과 혼성 4종 릴레이 종목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시즌 첫 전국무대에서 거둔 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남 근대5종은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올해도 안정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남일 5종에 출전한 양우승·박상구(전남도청)는 펜싱(444점·2위), 장애물 경기(625점·2위), 수영(617점·5위), 레이저런(1274점·2위) 등 전 종목에서 고른 경기력을 선보이며 총점 2960점을



'제43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박상구(왼쪽 첫 번째)-양우승(왼쪽 두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기록, 국민체육부대(3116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혼성 4종 릴레이에 나선 김영하-이재민(전남도청)도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선전했다.

펜싱(254점·1위), 수영(329점·2위), 레이저런(404점·2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총점 987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1031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특히 김영하는 지난해 전국체전 5종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에 오른 데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구 역시 전국체전 4종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어 전남 근대5종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희섭 전남근대5종맹종 회장은 "시즌 초반 대회임에도 선수들이 준비한 내용을 경기에서 잘 풀어내며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맞춤형 훈련과 팀워크 강화를 통해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선수단에 축하를 전한다"며 "종목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과 훈련 환경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